



개교 40주년 맞은 '취업·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대학교



김혁중 광주대학교 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올해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광주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지역의 명문 사학이다. 올해 호남지역의 대학 중 유일하게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에 선정되는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학생 중심 현장실무 교육 효과 '톡톡'

광주대는 2019년 정보 공시를 기준으로 광

주지역 4년제 사립대 취업률 '다' 그룹 1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한 2019 청년드림대학평가에서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중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대는 전체 학부(과)에 취업 담당 교수를 배치하고, 저학년부터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 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 학년별 맞춤형 지원, 전공별 커리어 로드맵 등 체계적인 취업과 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창업에 강한 대학' 스타 창업가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3년간 55여 억원의 국비를 받아 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매년 25억원씩 3년간 75억원을 받아 초기 창업자 발굴과 사업화를 돕고 있다. 또 재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등록하고, 창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이렇게 합니다"

광주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1천 742명(정원 내 1천652명·정원 외 90명) 중 수시모집에서만 1천724명(99%)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일반학생전형과 지역학생전형,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전형 등 총 3개 전형으로 시행된다. 모든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뤄진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반학생전형 학생부 70%+면접 30%(일부학과 면접 40%), 지역학생전형 및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전형 학생부 100%를 적용한다.

최대 3회까지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수험생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중복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광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취업과 창업에 강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